



사물들을 생각들로 변환시킴

Resolving things into thoughts

아넷트 도허티 (Annette Dougherty)

저널 온라인판 (Journal online)

2011년 9월 26일

오늘날 대중적인 생각의 한 풍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경험들을 창조하고, 좋던 나쁜던 우리 삶의 상황과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이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더 나아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욕구를 주의 깊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마음에 그리면,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의 경험을 통해 구현될 것이라고까지 말한다.

많은 내 친구들은 이런 관점이 크리스천 사이언스와 매우 흡사하다고 말하며 나에게 이것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였다. 나는 다른 신념을 품고 있는 사람들과 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인지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한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부모님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들과의 공통적 기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감사하게 여긴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이론들과 신성의 **마음**, 즉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이론들 사이의 차이를 이해한다는 것이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발견한 메이 베이커 에디는 그녀의 종교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출애굽기 20 장 3 절)는 제일계명 위에 확고하게 기초를 두었다. 사실상, 그녀는 그녀의 교과서인 *과학과 건강 부 성서의 열쇠*에서, “제일계명이 내가 특히 좋아하는 구절이다. 그것이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실증한다. 그것이 **하나님**, **영**, **마음**의 삼위일체를 깨우쳐 준다; 그것은 사람은 영원한 선이신 **하나님** 외에는 어떤 영이나 마음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과 모든 사람은 유일한 **마음**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340 쪽)고 썼다.

사람은 창조자가 아니라 유일한 창조주의 선함을 반영하는 존재이다.

만일 우리가 유일한 한 분의 **하나님**만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유일한 **마음** 즉 **창조주**만 계신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떨어진 상황이나 문제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일이다! 사람은 창조자가 아니라 유일한 **창조주**의 선함을 반영하는 존재이다. 우리 삶에 있어서의 모든 좋은 것은 그것의 근원을 모든 현명함, 모든 사랑, 모든 선함이신 **하나님** 안에 가지고 있으며, **그분**의 창조 안에서 표현된다. 인간의 마음이 아닌 이 신성의 **마음**이 모든 것을 알고, 우리의 모든 필요, 즉 집이든, 자동차이든, 일자리이든 또는 배우자이든 그것들을 채워준다. 우리의 상황을 ‘고치려고’ 또는 개선하기 위해 인간적 사고를 조작하거나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 잘 못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만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태복음 6 장 31 절~33 절)고 말씀하셨다.

에디 여사는, “물질적 이론들을 초월하는, 신성의 **과학**은 물질을 배제하고 사물들을 생각들로 변환시키며, 물질적 감각의 대상들을 영적 아이디어들로 대체한다.”(*과학과 건강*, 123 쪽)고 썼다. 나에게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 필요로 한다거나 원한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취할 조치는 생명이 순수한 영적 기반이 아니라

For this translation in English and other translations in Korean,
please see <http://translations.christianscience.com/translations/list/lang/Korean>.

Translation © 2011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This translation has been performed by Mother Church members in the Field and made available by agreement with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You may reproduce up to 100 print copies of this Article. You may not sell or reprint this Article in another publication without permission of CSPA. You may not post or embed this Article on other websites; instead please link to the Article on the CSPA website.

물질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물리적 이론들을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이다. 물질적 대상을 마음 속으로 그리면서 그것이 우리의 경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바라며 물질로써 시작하는 대신, 크리스천 사이언스 신자는 물질적 사물들을 생각들로 변환시킨다. 어떻게 이것을 하는 것인가? 아이디어의 본질을 깨달음으로써 한다. 예컨대 당신이 집을 필요로 한다고, 구체적으로 검정색 덧문이 있고 뾰족한 말뚝들로 울타리를 한, 빨강색 집을 필요로 한다고 해보자. 그 집이 우리에게 정말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로 우리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랑, 따뜻함, 평화, 안전한 느낌, 사적 자유, 아름다움, 밝음, 널찍함, 즐거움, 그리고 환대와 같은 집의 개념이 상징하는 영적 특성들이 아닐까? “집”에 대한 생각은 정말로는 하나의 영적 아이디어이고, 집의 특성들은 각 개인의 의식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그것들을 찾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우리는 특성들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도 없다.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 존재의 한결같은 영원한 부분으로서 가슴 속에 간직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던 환대와 집의 개념에 포함된 모든 특성들을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그리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집을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로, 우리가 우리 자신뿐 아니라 모두를 축복하는, 완전한 집을 발견하게 될 때 결코 놀라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마음이시므로, 완전한 조화와 정확한 해답이 있는 것이다.

언젠가 나는 모든 기회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정말로 절실하게 느끼게 만든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나는 2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우리는 바다의 생물들을 공부하고 있었고, 나는 내가 가르치는 학급을 고래 관찰을 위해 데려가기 위한 주선을 하였다. 그 여행이 긴 시간을 필요로 하여 학교가 끝나는 시간 전에 돌아올 수가 없었으므로 그 여행을 일요일에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다. 모든 학부모들도 여러 대의 자동차로 줄을 이루어 나를 따라 배를 향해 갔는데, 배는 학교로부터 한 시간 걸리는 거리에 있었다. 나는 모든 주선을 했고, 예약을 했으며, 돈도 미리 보냈었다. 그러나 내가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내 뒤에 따르게 하며 매표구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젊은 여자는 그들은 예약을 받지 않았으며 내가 예약을 했다는 아무런 기록도 없다고 하였다. 더욱이 그 배에는 내 반의 모든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들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없었다. 나는 너무 화가 치밀어 관리인을 보자고 요구하였지만, 그 당시 그곳에는 관리인이 없다고 하였다. 나는 모든 것을 시도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바로 이때 나의 마음 상태는 효과적인 기도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부두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다. 당황하여 찢찢매며 억울한 심정으로 나의 진지한 어린 아이들과 그들의 근심스러워 하는 부모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옆으로 돌아섰다. 스스로를 진정시키려는 가냘픈 시도를 하며, 나는 귀를 기울여 들어보려고 노력하였다. “하나님께서 마음이시므로.....”는 생각이 떠올랐다. 바로 그것이였다. **하나님께서 마음이시므로**, 그래서 내가 얼마나 당황하든지 기도를 할 수 없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마음이시므로**, 그래서 어떤 실수도 없고, 실망한 아이들도 없고, 뻑뻑하기 짝이 없는 매표구 직원도 없다. **하나님께서 마음이시므로**, 완전한 조화와 정확한 해법이 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시므로**, 그 순간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든 볼 수 없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여전히 진실이다. 나는 신성의 **마음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

거의 즉시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죄송합니다만, 당신이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는 것을 우연히 들 수밖에 없었네요. 나는 교장선생을 했답니다, 그리고 일요일 오후에 학급 아이들을 야외 수업에 데리고 나온 선생님은 누구든 배를 탈 자격이 있지요. 나에게 고기잡이 배가 한 척 있으니, 당신의 모든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들을 모아주세요, 그리고 감시다. 우리는 고래 관찰을 가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아직까지 했던 것 중 가장 훌륭한 고래 관찰이었다. **마음이 하나님**이시므로 모든 것이 이지와 지혜와 질서의 작용 아래 있다는 깨달음이 그 상황에 즉각적인 해법을 가져온 것이였다.

성경은,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야고보서 1 장 17 절)고 말한다. 신성의 **마음이** 유일한 **마음**이다. 모든 참된 생각들과 동기들은 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예수님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마태복음 6 장 33 절)는 충고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던 이 마음을 우리 안에도 있도록 하게 할 것이다. (빌립보서 2 장 5 절 참조)

아넷트 도허티는 매사추세츠주 업튼에서 살고 있다.

Translation © 2011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This translation has been performed by Mother Church members in the Field and made available by agreement with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You may reproduce up to 100 print copies of this Article. You may not sell or reprint this Article in another publication without permission of CSPA. You may not post or embed this Article on other websites; instead please link to the Article on the CSPA website.